

법률문제 상담...교계 복지관 찾으세요

불교계 복지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호응

사례1 박모(77) 할아버지는 20년 전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다. 당시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줬던 터라 지금은 매달 주던 이자도 언젠가부터 김 할아버지에게 주지 않는 등 변제(淸滯)할 생각을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김 할아버지는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에 무료 법률상담을 요청했고 소액재판의 정보를 얻은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해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모두 되돌려 받았다.

불교계 노인복지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변호사가 직접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찾아가 1:1 대면 상담

각분야 전문 변호사 직접 방문
채권·채무·상속문제 등 다양
기초수급권자는 소송비용지원

을 하는 방식이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 345명이 복지관별로 월 1회 방문 상담하고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사소한 채권·채무 문제부터 상속, 임금 체불 등 다양하다. 상담을 원하면 복지관에 문의해 미리 상담 일정을 정하고, 예약일에 복지관 상담실을 방문하면 변호사와 대면 상담할 수 있다.



상담주제는 사소한 채권·채무 문제부터 상속, 임금 체불 등 다양하다. 상담을 원하면 복지관에 문의해 미리 상담 일정을 정하고, 예약일에 복지관 상담실을 방문해 변호사와 대면 상담할 수 있다. 사진은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2006년부터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부설기관인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정원)로 장소를 옮겨 어르신들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직접 찾아와 한달에 20~30건 정도의 예약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 밖에 불교계 복지관은 2008년

발효된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수급권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공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 장애인 복지회사가 직접 찾아와 한달에 20~30건 정도의 예약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 밖에 불교계 복지관은 2008년

무료법률상담 제공하는 불교계 복지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등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전문상담센터에서는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매주 수·금요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매월 1회,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월요일 오후 4~5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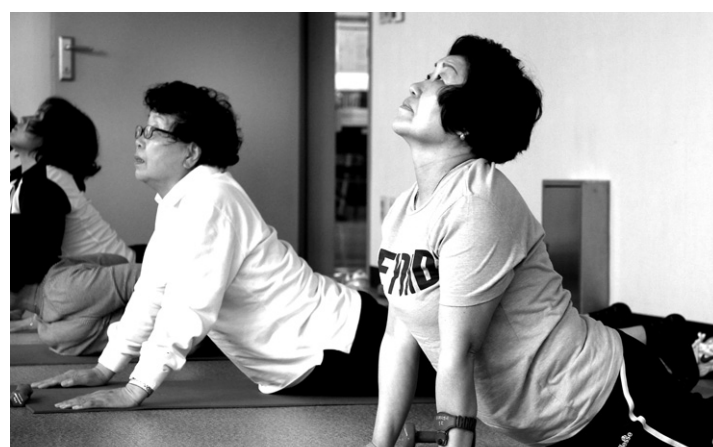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심훈보 과장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복지관에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다 변호사가 민원인에게 상담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개인의 처지에 맞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 주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이 높다"고 전했다.

이은근 기자

우리복지관 주력사업

서울 송파복지센터
'몸짱프로젝트'

어르신들 위한 비만클리닉 운영



'몸짱교실' 참가 어르신들은 4개월간 주2회 산책로를 40분간 걷고 센터에서 유연성·근육강화운동 및 스트레칭을 하면서 평균 3kg을 감량했다.

노년기로 접어들어 어르신들은 사회적 역할 축소와 신체·생리적인 능력감퇴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운동을 통해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일상적인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서울 송파복지센터(센터장 손지영)는 2009년 개관이후 출근헬스, 요가,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단전호흡과 각종 근력운동 및 유연성향상 체조 등 20여 개 강좌를 운영하는 '몸짱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00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복새동을 이루며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몸짱프로젝트 사업'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비만클리닉'. 송파복지센터가 2011년부터 체지방비율이 23%이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여 명의 어르신들은 건강검진과 체지방 측정을 통해 현재 기초체력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것인지 담당자와 상담을 한 뒤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2012년 상반기 참가 어르신들은 주2회마다 센터에 들러 오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마치고 복지센터 뒤편에 위치한 송파소리길과 야산 등산로를 약 40분간 걷는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때쯤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와 강사의 지도아래 유연성·근육강화운동 및 스트레칭을 한다.

4개월간 꾸준히 운동한 어르신들에게 어떤 변화가 왔을까. "폐활량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땀이 많이 가버워진 느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니 친밀감이 높아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휴일을 걷다보니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도심 속에 있는 산이라 보통 때 보다 공기가 더 상쾌하고 좋아요."

"걷기를 싫어했는데 걷기운동을 즐겨하게 됐고 고혈압, 당뇨 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약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게 됐어요."

평균 80%의 출석률을 보일 정도로 '비만클리닉'의 반응은 좋다.

4개월간 주2회 운동
평균 3kg 체중 감량
스트레스해소·사회성up

송파복지센터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양은혜 건강증진사업 담당은 "4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평균 3kg 체중감량과 체지방량 1kg, 체지방률 1.3%가 감소되었고 폐활량도 138ml 증가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송파복지센터는 지속적으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비만클리닉'은 9월 중순에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송파지역에 거주하는 체지방비율이 23%이상인 어르신들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02)409-1616

이은근 기자

두 살 된 환희를 살려주세요

생명나눔, 9월의 환우 선정

2년 전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장을 하던 신훈부부에게 예쁜 아들 '환희'가 태어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권환희(2년2개월·크라베병)

그런데 언젠가부터 환희가 기운이 없고 잘 먹지도 못하게 됐다. 서울대병원에서는 환희가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라베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뇌가 파괴돼 신경이 퇴행하는 희귀질환이다. 모든 신경계에 퇴행을 가져와 팔다리 근육의 힘이 없어지고 지능 및 신체 발달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인다.

환희는 치료를 위해 2011년 7월 제대원 이식을 받았지만 워낙 완치가 어려운 병이라 호전되는 상황은 아니다.

환희가 병원에 있는 사이 부부는 너무 지쳤고 사이가 멀어져 이제 아버지만 남았다. 아버지는 사과농장을 그만두고 환희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병원에서 함께 생활할 예정이다.

아버지도 당뇨병이 있어 몸을 잘 관리해야 하지만 환희가 건강하게 자라만 준다면 바랄 것이 없다. 이리다 같이 몸 상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할머니도 무릎 연골이 파괴돼 제대로 걷기가 힘들 지경이다.

아버지는 사과농사를 그만두게 되자 당장 수입이 없게 됐다. 매일 환희의 치료비로 250만원이 드는데 5년간 6000만원의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후원계좌: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저소득 가정 아이에게 책가방 선물하세요

아름다운동행, 9월 16일 조계사에서 나눔 바자회 개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9월 16일 오전 10시 조계사 뒷마당에서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 보내기'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 바자회'를 연다.

'나눔바자회'에는 세왕삼유, 잠뱅이, 락앤락, 주니어김영사, 동대문 의류상가, 코바식품,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맛에서 물품후원에 동참했으며, 아동 도서, 주방용품, 생활

용품, 쌀국수, 떡국 등이 판매된다.

'나눔바자회'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내년 상반기에 전국의 아동들에게 책가방과 학습품 세트로 구성된 입학선물로 전달 될 예정이다. (02)737-9595

신종일 기자 moto79@hyunbul.com

영주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체육대회

영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도윤)은 9월 14일 오전 10시 개관11주년 맞이 '영주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영주시국민체육센터에서 마련한다.

영주시적장애인협회, 영주시각장애인협회 등 영주시 6개 장애인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3부로 구성돼 진행된다. 1부에서는 기념식 및 축하공연

을, 2부에는 장애체험경기와 공굴리기, 바톤릴레이, 고리던지기 등 단체경기를, 3부는 폐회식 및 우수 참여단체 시상을 진행한다. (054)633-6415

일산노인복지관 전국어르신백일장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학석)은 10월 10일 오전 10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및 호수공원 일대에서 '전국 어르신 백일장 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시(문운)와 수필(산문)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글쓰기 실력을 겨루게 된다. 행사는 거리상 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을 위해 백일장대회와 더불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문학작품 공모를 함께 실시한다. 글의 주제는 사전공모의 경우 자유 주제이며, 백일장대

회는 행사 당일 공지될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사전 신청자 접수를 해야하며 접수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참가신청서 1부(사전공모의 경우 원고 1부 추가)를 복지관 홈페이지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031)919-8677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비법전수

일반적인 천도재가 아닌 내가 보고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방법을 전수합니다. 환자와 가족분들이 확인이 가능

1. 영가는 있는데 확인을 해 줄수 없는 스님, 법사님.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확인)
3. 최면과 차원이 다른 기도를 통한 영적인 가르침.
4. 일반병. 정신병과 영가 장애 질환의 구분확인.(질병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5. 난치병 뒤에 숨은 영가를 확인하여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영가를 몸으로 행동으로 표출한다.
6. 영가에게 말을 가르치는 방법과 빛을 보고 천도되게 하는 방법.
7. 스님의 고질병, 영가장애확인, 신도들의 영가확인.
8. 파동교감법, 영혼심령술, 자율신경계통제법, 오장육부파동교감법을 통한 확인 본인이 직접 천도확인 가능.
9. 암, 당뇨, 고혈압, 중풍, 치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불면증, 환청, 환시, 무속병, 대물림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원인 규명이 안되는 질환(일반 불자님이나 스님의 난치병 상담) 사찰내 건강프로그램 운영하실분, 대체의학센터 운영에 관심있는 스님과 신도분, 우뇌교감 난치병치유방법 전수
10. 영가의 수준확인 저급영가 - 한과집착질병호소 중급영가-진리를 찾아 방향과혼돈 고급빙의-깨달음에 대한 갈망과열정

◆ 10주과정 스님. 법사. 포교원. 퇴마공부 하시는분 약간명 모집 ◆

- 기도명상, 만다라진언수련, 영언수련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이 온 목적과 이유 삶의 가치를 확립. 영혼이 윤회의 확실한 기억을 알게함.
-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스님과 조경후에 결경 개별지도 및 단체지도, 사찰 출장강의 지도합니다.
- 형편이 어려운 일반불자분은 재능봉사 기부를 통한 치유합니다.

※ 포교원 스님 영가확인 천도 특별지도해 드립니다.
※ 확인이 안된 영가질환은 치유 안합니다. 본인 확인 과정 꼭 거칩니다. - 원 장 여산법사 함장

인체전氣 파동의학원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신입·경력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선학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같이 할 신입 및 경력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 아 래 -

모집분야	응시자격	공채인원
행정·법무 공영	관련분야 3년 이상 종사자	0명
신입사원	행정·법무직 종사 희망자	0명

※ 각 분야 공히 불자로서 균필자 및 면제자

- 응시기한 : 2012년 9월 25일 오후 6시까지
- 구비서류 : 1. 이력서(사진부착) 1부
2. 졸업증명서 1부
3. 자기 소개서 1부
-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재단법인 선학원 사무처 이메일접수 - jaedan@hanmail.net

불기 2556(2012)년 9월 5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